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9호 【루계 제25452호】 주체105(2016)년 11월 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륙군상장 리영길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의 광기어린 무모한 침략도발행위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시려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해주시고 군부대의 병영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한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특수작전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수작전대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 종합훈련관, 수영훈련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 세목장, 리발실들을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양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적후투쟁을 해야 하는 전투원들은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잘 준비되여야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사조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도 잘 꾸렸으며 조리대에 음식감들도 가득히 차려놓았는데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강도를 높일수 있다고, 고기, 탄알, 물고기를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급식규정량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것과 함께 구미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시설들도 전문체육단 못지 않게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병영을 생활구역, 훈련장구역, 보장구역의 제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주변환경정리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체훈련실, 경기홀, 무선통신상학실, 콤퓨터상학실, 지형학상학실, 적군상학실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훈련관과 수영훈련관을 전투원들이 유사시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였다고 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외종합훈련장에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극복훈련 및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강하훈련, 직승기바줄강하훈련, 습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백두산의 폭풍과도 같이, 백두산의 번개와도 같이 단숨에 원쑤의 아성인 서울에 돌입하여 조국통일대사변의 첫 총성을 울리며 무엄하게도 《북수뇌부직접공격》, 《참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벌이는 불구대천의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천만군민의 가슴에 쌓이고쌓인 분노를 가슴후련히 풀고야말 천백배 복수심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것을 기본전투임무로 하고있는 용맹한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번개같이 몸을 날리면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고, 무쇠주먹, 무쇠덩이라고, 권총이면 권총, 자동보총이면 자동보총 쏘면 쏜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총알에 눈이 달린것만 같다고,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는 최고사령관이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대대를 당원부대, 군관부대, 대학생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 사격, 행군, 수영을 비롯한 모든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 훈련지휘관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모든 전투원들을 정찰, 침투, 습격, 파괴 등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병사, 다병종화된 싸움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등 특수작전대대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등허리를 분질러놓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이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멸의 군령도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누리에 붙는 불이 되시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 11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형권동지의 불같은 한생은 혁명전사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새겨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유언을 심장에 새기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친형님이기 전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영명한 지도자이시였다.

하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를 모르시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가시였다.

파발리에 울린 혁명의 총성

김형권동지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파발리이다.

파발리는 1930년대당시 풍산군 안산면의 두메산골마을이였다.

이곳을 파발리라고 부르게 된것은 지난날 여기에 역참이 설치되고 공문이나 소식을 급히 전달하는 파발들이 드나든데서부터 유래된것이다.

그때 파발리는 북부고산지대치고는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곳에 각종 폭압기구들을 설치해놓고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특히 포악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마쯔야마놈이 이곳에 온 때로부터 인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았다.

마쯔야마놈이 얼마나 악착하였던지 이곳 인민들은 그놈을 《오빠시》라고 불렀다.

주체19(1930)년 8월 어느날 파발리에 들어선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일행이 주재소앞을 지나갈 때였다.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주재소에 들어가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오빠시》놈을 쏘아보시였다.

사무실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그놈은 살기띤 눈으로 김형권동지의 아래우를 훑어보면서 별명그대로 땅벌처럼 달라붙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몸에 간수하고계시던 권총을 빼드시였다.

《오빠시》놈은 질겁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복걸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러는 놈의 상판을 쏘아보시며 네놈은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이니 용서할수 없다고 준렬히 단죄하시고 복수의 총탄을 그놈의 가슴팍에 안기였다.

갑자기 울린 총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재소로 모여들었다.

몽당치마를 걸친 녀인들과 헐벗은 어린이들, 더벅머리청년들과 로인들 등 파발리사람들과 장보러 온 사람들로 주재소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모여온 군중앞에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일제놈들과 싸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들을 못살게 굴던 《오빠시》란 놈을 처단하였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철천지원쑤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연설은 군중을 환희와 새 희망으로 끓게 하였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두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군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동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여 34년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끝내 《전향문》을 쓰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지켜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혁명가는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김형권동지의 그날의 연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기때문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울리신 총소리,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일제에 대한 울분과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총성이였으며 국내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혁명의 메아리였다.

꺾일줄 모르는 강의한 투쟁정신으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거느리시고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려나가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다.

비록 철창속에 갇히신 몸이 되였으나 조국의 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는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법정투쟁과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신 김형권동지이시였다.

어느날이였다. 옥중투쟁을 지휘하시던 김형권동지께 뜻밖의 통방신호가 왔다.

그것은 나도 체포되였다, 혁명가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목숨으로 비밀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방신호였다. 그는 제일 나어린 소조원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의 맹세를 굳게 믿으시였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것만으로는 소조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할수 없다고 생각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에게 지조를 지킴은 혁명가의 초보적인 임무이다, 맡겨진 임무를 결사코 다함이 우리의 본신임무이다, 이제부터 투쟁마당은 감옥이다, 여기에는 팔도강산 도처에서 압송되여온 선각자들과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을 지피면 앞으로 출옥하여 조국땅 천지에 혁명의 불을 지를것이니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라는 회답을 보내시였다.

김형권동지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오늘도 재판장에서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가 우리 귀전에 들려온다.

원래 한번 옳다고 생각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든지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투지와 부당한것을 보고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미를 지니신 김형권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이 강도적인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15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지만 조금도 비관하지 않으시였다. 오히려 재판장을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들고 원쑤들을 기절초풍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지들과 함께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시였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필승의 신념으로 충만된 노래소리는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원쑤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일제야말로 우리 강토에 기여든 침략자, 우리 나라의 온금보화를 략탈해가는 날강도, 무고한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죽이는 살인자라고 락인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독한 죄행을 천추에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원쑤들을 단죄하시는 그이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이 이글거리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몸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여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결코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는다는것이 김형권동지의 철석같은 혁명신조였으며 드팀없는 의지였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모아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침략자들을 족치고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감옥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투쟁무대로 여기시고 옥중생활의 그처럼 엄혹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리신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혁명정신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불같은 애국충정의 발현이였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 놓이더라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있었기에 김형권동지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쑤들을 당황망조케 하였으며 조선혁명가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혁명정신, 애국정신을 지니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누리에 붙는 불이 되시여 조선혁명의 년대기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세월은 멀리 흘렀으나 조선혁명의 혁명기에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투쟁하신 김형권동지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천만의 대오에 끝없는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혁

원아들을 위한 사랑의 명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주체103(2014)년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랭동시설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급동기, 랭동저장실들, 수산물운반에 리용할 지게차, 랭동차 등 현대적인 설비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짧은 기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지금까지 현대적인 수산물랭동시설에 대하여서만 깊이 관심하시는줄 알았는데 줄곧 원아들을 생각하시였구나. 그들을 잘 돌봐주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이렇듯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바다가에까지 찾아오시였으랴. …)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는것이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명령의 구절구절은 일군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원아들을 위해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는 우리 조국.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사실이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를 해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받아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아들을 위해 천금같은 혁명시간을 바치신 그이의 후대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가슴에 새기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도 채 못되는 2월 3일 감동깊은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이날 평양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애육원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변의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저 하늘의 태양이 따사롭다 하여도 이 땅의 원아들을 위하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베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이 있어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이 목메여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그리도 절절하게 울려퍼지고있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김성남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동평양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청산벌에서의 류다른 경기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수록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벼가을이 한창이던 어느해의 10월 6일이였다.

이날 풍년든 청산벌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런 벼이삭이 파도처럼 설레이는 농장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였다.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관리일군에게 정보당 몇t이나 날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잘했다고, 청산리가 세계에 대고 장훈을 부른셈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벼가을을 언제까지 다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벼가을을 빨리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하고있던 그는 미처 타산해보지도 못한채 10월 10일까지 끝내겠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리였다.

관리일군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해보라고 이르시고는 농장을 떠나시였다.

이날 밤 관리일군은 홀로 앉아 생각을 굴려보았다.

아무리 궁냥을 해보아야 이제 남은 며칠동안에 벼가을을 끝낸다는것은 힘든 일이였다. 마음이 급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농장원들에게도 옮겨져 모두들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였다.

그날 밤이였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전조등빛을 번쩍이며 먼 산굽이를 에돌아 마을어구로 꼬리를 물고 들어서는것이였다.

깊은 밤에 무슨 차들인가 하여 관리일군이 어리둥절해있는데 차가 멈춰서더니 누군가가 뛰어내리며 그를 부르는것이였다.

청산리에 자주 나오군 하던 예술부문의 일군이였다.

관리일군의 손을 꼭 잡은 그는 자기들이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오늘 10월 10일까지 가을걷이를 끝내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 말씀올렸는데 농장로력과 지금 나가있는 지원로력만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걱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레부터 하게 되여있는 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체육경기대회를 래일로 앞당기고 첫 경기의 한 종목으로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를 넣어야 하겠다고, 이번에 출전하게 되여있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경기에 다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벼이삭 하나라도 흘려서는 안되며 그런 단체는 다음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경기준칙까지 설정해주시고 경기판정성원들도 정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체육경기력사에 없는 청산리벼가을전투경기가 경기 첫 종목으로 선정되였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태운 요란한 자동차행렬이 첫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벼가을전투경기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다음날 이른아침부터 벼가을경기가 시작되였다.

첫 경기에 참가한 그들은 기세충천하여 번개같이 일손을 놀리면서도 포전에 벼 한알이라도 떨어질세라 알뜰하고 깐지게 벼가을을 다그쳤다.

점심이면 논머리에 펼친 예술공연이 청산벌을 들썩하게 하고 밤이면 너도나도 떨쳐나 작업반휴식소와 유치원들을 번듯하게 꾸려주었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이한 경기였다.

그 덕에 농장에서는 그처럼 아름찼던 벼가을전투를 당창건기념일까지 성과적으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이들처럼 당의 수산정책관철투쟁에서 만리마기수가 되자

문덕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벅찬 시기에 문덕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수산전선의 맨 앞장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지난 9월말까지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11월 2일현재 200일전투목표를 승리적으로 돌파!

몇달동안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240hp운반선과 80hp두릉안강망선을 무어내고 2척의 트랄어구를 제작완성, 근 60m의 잔교식부두를 건설!

수산물가공장을 2배로 확장하고 새로운 물고기가공공정확립, 급동설비를 현대화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

총정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온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얼마전 수산전선의 전형단위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서해안의 그리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가 어떻게 만리마기수가 되여 수산전선의 본보기단위로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인가.

기수는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고있는 단위들에 가보면 계속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로운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는 자랑찬 현실을 목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에서 일하는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당의 수산정책결사관철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을 투시해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투목표문제이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해마다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성과는 날이 갈수록 크지만 그들의 일욕심에는 끝이 없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지금도 그렇고 70일전투의 나날에도,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그랬다.

몸소 앞장에서 수산전선을 진두지휘하시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군들은 계속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두해전에는 240hp만능선 2척, 240hp운반선 1척, 80hp두릉안강망선 2척을 무어냈고 지난해에는 또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240hp만능철선 1척과 80hp두릉안강망선 1척을 무어내고 30t능력의 운반선을 2배의 능력으로 개조하였으며 2척의 외룡안강망선을 두릉안강망선으로 개조하였다. 이것은 전례없는 혁신이였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고기잡이배들을 두릉안강망선으로 개조하여 물고기생산을 1.5배로 높이였다. 여기에 위성정보에 의한 위성물온도전송체계를 도입하여 2014년에 1만t의 물고기를, 2015년에는 1만 800여t의 물고기를 잡아 서해지구 수산부문 사회주의경쟁에서 련속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정의 70일전투의 나날에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높이 세운 목표를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다.

지난 5월 중순 어느날 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지배인 림덕화동무는 초급당위원장 박병일, 기사장 최일규동무와 사무실에 모여앉았다.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수산부문의 모범단위로서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일군의 얼굴은 서로 이렇게 묻고있었다.

그것은 사업소가 수산부문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단위로,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고 고기배와 어구현대화, 물고기잡이에서 련속 성과를 거두게 되자 일부 일군들속에서 이에 만족하여 고삐를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나는 성과에 조금도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야 합니다.》

10여년간을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지와 정력으로 일채를 메고 사업소를 생활력있는 단위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지배인 림덕화동무의 목소리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한 지배인은 또다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완강하게 일관을 전개할것을 결심하였다.

수령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믿음과 사랑에 당정책결사관철로 보답하기 위해 심장을 불태우는 일군에게는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일군은 성과에 조금도 만족을 모른다. 림덕화, 최만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기간에 240hp운반선과 80hp두릉안강망선을 뭇고 잔교식부두를 건설하며 수산물가공장과 절임탕크의 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편의봉사망개건공사를 완공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 2년동안에 여러척의 240hp, 80hp고기배를 무어낸 사업소에서 또다시 내세운 이 목표는 사실 아름차고 방대한것이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어로공, 기술자들은 만리마의 고삐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련속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200일전투기간에 내세웠던 목표를 훌륭히 돌파하고 수산부문의 전형단위로서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사실 10여년전 사업소의 실태는 말이 아니였다. 변변한 고기배와 어구도 없었으며 물질기술적토대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의 눈밖에 있던 수산사업소가 오늘은 자체로 무은 240hp만능선 5척을 비롯하여 30여척의 크고작은 배들과 현대적인 어구를 갖추고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단위로, 안팎이 번듯하게 일신되고 어로공들의 로동생활조건, 문화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생활력있는 단위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지배인 림덕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해마다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한길로 끊임없이 줄달음쳐온데 있다.

그렇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만리마기수는 고삐를 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지와 정열로 만리마의 고삐를 바싹 틀어쥐고 계속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박차를 가하는 기수만이 더 높은 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꽂을수 있는것이다.

과학기술의 룡마를 탄 기수가 되여야 한다

서해안에서 남달리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이곳 사업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있다.

전문적으로 배를 뭇는 선박공장이나 어구를 만드는 공장도 아닌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에서 어떻게 되여 240hp철선까지 마음먹은대로 무어내고 어구도 자체로 만들어 물고기잡이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

지난 5월말에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문덕수산사업소가 내놓은 전시품들중 1건이 1등, 2건이 2등, 5건이 3등을 하여 참가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새로운 중형배설계와 무이에서 나서는 문제, 무활개안강망제작과 리용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산사업소에서 내놓은 과학기술성과들은 착상이 독특하고 실리가 큰것으로 하여 누구나 앞을 다투어 배워갔다.

과학과 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력갱생도 할수 없고 생산도 장성시킬수 없는것이 오늘의 경제발전현실이다.

10여년전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림덕화, 최일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업소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사업소일군들의 일본새에서 특징적인것은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인재들을 찾아내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여기서 기술자들의 발언권과 권위를 높여주어 그들이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사업소에는 남포수산대학을 졸업한 한 기술자가 있었다. 일군들은 그를 설계원으로 배치하고 배와 어구현대화에서 한몫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몇해전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던 지배인은 배와 어구의 현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어황조건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서 서해먼바다어장을 개척하여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결정적으로 운반선과 능력이 큰 고기배들이 있어야 하였고 어구도 개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어디 가서 배와 어구를 달라고 할데도 없었고 또 주겠다는데도 없었다. 방도는 오직 하나 제힘으로 현대적인 배를 뭇고 어구를 갱신하는것이였다.

뭍에 돌아와 설계원 리철수동무를 만난 지배인은 운반선과 철선을 자체로 무어보자고 하면서 착상의 실마리를 틔워주었다. 지배인과 기사장, 설계원은 콤퓨터모의실험을 거듭하면서 먼저 운반선을 설계하였다. 운반선을 무은 후에는 또 능력이 큰 철선으로 된 고기배를 무을데 높은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배수리직장과 배올림대를 개건확장하고 자체로 설계한 배들을 무어내기 시작하였다.

사업소에서 무어낸 《단풍》호계렬의 240hp고기배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는 트랄, 안강망, 자망도 다할수 있는 만능배로서 배모양과 구조설계가 새롭고 건조방법도 특색이 있어 호평을 받고있다.

리철수동무는 배무이만이 아니라 어구를 새로 만들거나 개조하는데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지배인, 기사장이 착상한것을 이야기하면 리철수동무는 곧 설계에 달라붙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구도 새로운것이 나오거나 개조되군 하였다. 리철수동무가 배모양과 선체설계를 잘하는 기술자라면 배수리직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장 지광남동무는 배의 기계설계, 기구, 장치설계를 잘하는 기술자였다. 이 두 사람이 달라붙으면 현대적인 철선을 무어내는데서 막힘이 없었다. 배수리직장의 목공작업반장 김정선동무는 나무배를 잘 뭇는 기술자였다.

일군들은 물고기잡이도 두뇌전, 기술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인재를 중시하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면서 그들의 정신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였다.

사업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새 집을 지어 남먼저 배정해주고 식량과 땔감, 후방물자는 물론 집꾸리기와 수리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까지 자동차로 실어다주어 그들이 집걱정과 생활상불편이 없이 기술혁신에 전념하도록 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설계원 리철수동무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몇차례나 수백리길을 다녀왔고 한 기술자의 안해가 앓을 때에는 중앙과 도의 병원으로 차를 함께 타고 몇번이나 다녀온지 모른다.

인재를 키우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현재 종업원들중 120여명이 기사자격을 받고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고있다. 그 수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있다. 두해전 70여명의 종업원들이 기사자격을 받았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열심히 배우며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쓰며 서로 경쟁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최근에는 새로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원격교육을 받기 위한 종업원들의 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기관차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기관차는 바로 책임일군들이여야 한다.

수산사업소의 지배인, 기사장,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물론 기술부원, 계획부원, 직장장, 선장, 기관장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기관차가 되여 기적소리를 앞장에서 울려가고있다.

지배인 림덕화동무는 무활개안강망과 고광출분할에 의한 대형선박안강망고정바줄구성방법을 비롯한 근 20건의 발명증서와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았고 기사장 최일규동무와 리철수설계원동무는 두릉개량안강망의 수평-수직균형보장방법을 비롯한 20여건에 달하는 발명증서와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았다. 또한 초급당위원장 박병일동무와 기술부원 박광용, 배수리직장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장 지광남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 어로공들이 여러건의 발명증서와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았다.

사업소에서 최근에 모든 고기배들을 두릉안강망선으로 개조하고 무활개식안강망을 비롯한 새로운 어구들을 창안도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아 200일전투에서 또다시 수산부문의 전렬에 서게 된것은 이처럼 일군들이 기술혁신의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간데 그 비결이 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일군들은 고기배와 어구를 더욱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전문과학연구기관들과 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놓치지 않고 중시하는 문제이다.

그들은 얼마전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룡금포앞바다까지 나가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해상지휘체계를 구축하고 4통의 트랄재에망을 설계제작하였으며 40통의 안강망에 손등이차단막이그물을 설치하여 수산물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군들은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지휘선과 사업소에 위성물온도수신기와 무지향성안테나를 받아들여 어장탐색과 어황예보의 과학화를 실현하였으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과학기술의 룡마는 누구나 탈수 있는것이 아니다.

자력갱생의 비결, 생산장성의 열쇠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진리를 뼈에 새기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 바다속에 뛰여들 결사의 각오가 되여있는 기수들만이 탈수 있는것이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보다 높은 고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해나갈 때 수산전선에서 만리마기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실천투쟁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박동석
특파기자 리혁철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원산어린이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200일전투목표 150%로 넘쳐 수행

덕성광산에서

지난 10월 9일 덕성광산에서 200일전투목표를 100%로 앞당겨 완수하는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려퍼졌다.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비약의 박차를 가해온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은 11월 3일현재 200일전투목표를 150%로 초과완수하였으며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광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인 유봉천, 정경화, 허영호동무들은 70일전투에 이은 200일전투에서 광산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시대가 바라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수가 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혁입식으로 들이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별, 주별, 월별로 200일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데만 그치지 않고 화선지휘관의 모습으로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내려가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앞질러 풀어주며 진격의 돌파구를 믿음직하게 열어나갔다.

철광석생산의 선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덕재광구와 6월7일갱의 전투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저녁이면 전시전투총화를 짓는 분위기속에서 하루생산총화가 열리고 성과에서는 경험이, 결함에서는 교훈이 분석, 총화되였으며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후방물자들을 안고 전투장으로 물결쳐오는 속에 높이 내세운 일전투목표는 매일과 같이 넘쳐 수행되였다.

선광직장, 운수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자기들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이바지하는 철광석을 생산한다는 심정으로 낮에 밤을 이은 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특히 선광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정광실수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운수직장 종업원들도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심정으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려 철광석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에서는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여 중요설비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가공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도 짜고들었다. 그에 토대하여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고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불변의 철리를 신념의 기둥으로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산물인 장뽈생산량을 부쩍 늘여 마광기의 정상가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채전지중대, 발파대, 동력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채전지관리와 발파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변압기, 전동기수리 등 맡은 과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갔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200일전투를 더욱 빛나게 결속할 일념안고 계속 힘찬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철강재생산에서 혁신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철강재생산을 30여일동안에 끝내는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혁명의 년대기마다 언제나 강철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성강로동계급은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노도와 같은 기상, 질풍같은 속도로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방대한 량의 철근생산과제를 단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행하여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강로동계급의 투쟁기질, 정신력의 강자들의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철근을 한달 남짓한 기간에 생산해낼데 대한 과제는 실로 아름찬것이였다. 압연강재생산량이 제일 많은 1조강직장의 경우만 따져보아도 이곳 직장이 맡아안은 북부피해복구건설용 철근생산과제는 지난 시기 직장의 월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량이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맹렬히 벌리였다.

1, 2조강직장의 압연작업현장에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글발이 나붙고 오늘의 돌격전에서 기적만을 떨치려는 성강로동계급의 불같은 기개가 차넘치는 힘있는 글발들이 작업현장을 채우다싶이 하였다. 현장을 들었다놓는 방송선전차의 화선선동과 기동예술선동대의 활동이 현장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북부전선에 보내줄 철근생산과제를 완수할것을 당앞에 엄숙히 맹세한 1, 2조강직장 로동계급이 총정의 돌격전에 떨쳐나섰다.

이들은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데 모를 박고 생산의 첫날부터 혁신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저정으로 잠 못 드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작업반장 최광운동무를 비롯한 직장로동계급은 눈굽을 적시며 더욱 입술을 다잡고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였다.

이들은 2시간에 한번씩 진행하게 되여있는 15분간 열간점검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여 많은 증산예비를 얻어내였다.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열간점검시간이 되면 누구나 설비점검에 떨쳐나 짧은 시간에 와닥닥 해제꼈으며 특히 리창서동무를 비롯한 수리작업반전투원들은 설비가동중에 여러가지 정황이 제기될 때마다 기발한 착상으로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불이 번쩍 나게 설비수리를 해제낌으로써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리작업반원들은 당이 맡겨준 생산과제수행을 한시간이라도 앞당길 목표를 내세우고 권선기 한대를 더 살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권선기가동대수를 늘이였다.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투쟁기풍으로 직장의 압연강재실수률이 부쩍 높아져 생산성은 거의 1.5배나 뛰여올랐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압연강재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기 위한 토대가 더욱 굳건히 마련되였다. 특히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을 높이고 가열속도를 지난 시기에 비해 2.5배로 높이였다.

북부피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문에 접하고 리택윤, 전봉춘동무를 비롯한 명예당원들과 오랜 기능공들이 현장으로 달려나와 생산자들의 기능을 높이고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련합기업소 부지배인이였던 리택윤동무는 생산과정에 자주 충격을 받아 압연기부속품이 못쓰게 되자 출선 나서서 로동자들과 함께 충격원인을 찾아 기대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장편이송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압연공들과 함께 마주앉아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장편이송자리길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교대당 생산량을 최고 2배이상으로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였다.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2조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압연강재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다.

김호식, 김성도, 정봉철교대작업반이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치렬한 증산경쟁을 벌려 지난 시기에 찾아볼수 없었던 최고기록을 련이어 돌파해나갔으며 철근생산과제수행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에는 김성도교대작업반에서 또다시 최고기록을 돌파하여 성강땅을 들썩이게 하였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과 모든 생산단위, 보장단위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일과 같이 압연작업현장을 찾아와 로동자들에게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벌리면서 이들의 증산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철강재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여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는데 크게 기여한 성강의 로동계급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강철증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세멘트수송에 바쳐진 뜨거운 마음

상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심장으로 받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화물렬차에 실어 북부전선에 보내주었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세멘트수송용화차보장을 위해 철야전투를 벌린 상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적지않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을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으로 정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세멘트수송화차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가셔주는 것을 가장 중차대한 혁명사업으로 여기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와 여러가지 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군인민위원회에서는 화차보수에 필요한 로력조직과 돌격대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 등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화차보수에 떨쳐나선 청년들을 위한 림시숙소마련과 생활조건보장에 힘을 넣어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투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화차보수에 필요되는 소공구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해결해주었으며 화차보수전투장의 조명문제도 원만히 풀어주었다.

세멘트수송용화차보수는 처음부터 치렬하게 벌어졌다. 수십명의 청년들이 남먼저 화차보수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명당역으로 달려나왔다. 이곳 철도역의 가족소대원들도 떨쳐나섰다.

청년들은 수송길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세멘트를 한g이라도 흘릴세라, 습기를 받을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가며 화차를 보수하였다. 철도역의 가족소대원들도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성과라고 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겨안고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정신으로 화차보수에 필요되는 자재들을 마련하였다.

세멘트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화차보수전투는 더욱 치렬해졌다. 홍성철동무를 비롯한 군일군들은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교대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여 화차보수실적이 부쩍 뛰어오르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화차보수전투장에 달려나와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화차보수에 필요한 수백m^3의 목재와 수만장의 가마니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상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화차보수전투장에서는 날마다 화차보수실적이 뛰여올랐다.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세멘트를 싣고 북부전선으로 떠나가는 화물렬차들의 기적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빛발치라 청춘이여, 더 높이 휘날려라 람홍색공화국기여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값높은 생의 자욱을 뚜렷이 아로새긴 체육인들은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체육영웅, 참된 애국자로 주체의 체육강국건설사에 빛날것입니다.》

처녀시절!

웃음도 많고 꿈도 많으며 청춘의 열정이 샘솟는 환희의 시절의 첫걸음을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푸른 잔디우에서 떼였다.

누구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름답게 추억할 소중한 처녀시절에 넘쳐나는 희망과 꿈을 축구공에 얹고 꽃다운 청춘의 자욱을 애국의 땀방울로 새겨가는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을 온 나라 인민들은 더없이 사랑한다.

어디서나 우리 선수들의 이름이 화제에 오르고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싶은 충동으로 온 나라가 끓고있다.

어제날 드넓은 축구경기장을 자기 집뜨락인양 달리고 또 달리며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기던 전세대 녀자축구선수들의 승리의 투쟁기풍이 오늘은 10대의 녀자축구선수들에 의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드놀지 않는 필승의 신심

세계는 지금도 우리 나라 팀의 승리에 대한 거세찬 충격으로 진동하고있다.

해당 나라와 지역의 녀자축구발전의 미래를 엿볼수 있게 하는 이 경기대회에 대한 체육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국제축구련맹은 유능한 축구선수후비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목표를 세우고 2008년부터 세계 17살미만 청소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당시)를 조직진행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때로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여 올해에 5번째의 년륜을 새기였다.

우리 나라의 미더운 청소년녀자축구선수들은 2008년 처음으로 진행된 대회의 결승경기에서 미국팀을 타승하고 우승한 때로부터 이 대회의 결승경기에 3차례, 준결승경기에 4차례 진출하였다. 바로 그때 1등을 하였던 청소년녀자축구선수들가운데서 허은별선수와 같은 녀자축구명수들도 배출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은 잉글랜드, 브라질, 나이제리아팀과 조별련맹전경기를 치르게 되였다.

세계축구계는 강팀들이 속한 이 조를 죽음의 조라고 불렀다. 이 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뜻이였다. 잉글랜드팀과의 첫 경기에서 우리 팀은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집단경기인 축구경기에서 팀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승리자의 미소가 비끼여 세계의 축구전문가들을 놀래웠다.

국제축구련맹 성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선팀의 선수들은 언제나 활기와 랑만에 넘쳐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만이 어려있었다. 승리를 확신한것 같다.》

그러나 축구공에 청춘의 꿈을 얹고 사는 나어린 처녀들의 숭고한 세계에 대해 아직은 누구도 몰랐다.

우리 선수들은 브라질, 나이제리아, 가나팀들의 꼴문을 련속 보기 좋게 흔들어놓으며 경기장을 주름잡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공격수 10번 리혜연선수는 나이제리아팀과의 경기에서 세꼴을 넣었다. 그 불같은 정열과 투지, 남다른 축구기술앞에서 세계가 놀랐다.

아시아의 강팀인 우리 나라 팀과 남아메리카의 강팀인 베네수엘라팀과의 준결승경기 역시 첫시작부터 매우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바로 전반 15분경 사람들의 기억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긴 김봄의선수의 멋진 중장거리차넣기가 상대팀의 꼴문을 흔들어놓았다.

이에 뒤이어 후반 26분경 감독의 전술적의도에 따라 교대해들어간 공격수 19번 자은영선수가 두번째 꼴을 넣었고 경기마감시간 몇분을 앞두고 공격수 10번 리혜연선수가 또 한꼴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 팀은 베네수엘라팀을 눌렀다. 이 경기에서 주장 박혜경선수와 전윤심, 리금향, 변은경, 고경희, 최은정선수를 비롯한 방어수, 중간방어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체육경기에서 승패는 기술에만 달려있지 않다. 축구경기에서도 그 생명인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높은 기술은 선수의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진정 승리를 확신한 드놀지 않는 배짱의 소유자들이 발휘한 비상한 경기의식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청소년녀자축구의 본보기와도 같은것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응원단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에게 외국의 기자들이 조선팀은 왜 응원단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경기모습을 지켜보고계시며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이 어서 이기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있다. 우리에게는 수천명 응원단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한 응원단이 있다.》라고 말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결코 한순간에 떠오른 대답이 아니였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였다.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자기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드린 우리 선수들이였다.

경기대회참가를 위한 맹훈련을 진행하던 김정심선수는 고향인 회령시에 큰물피해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달려온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는 고향땅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보면서 그는 희망처녀답게 청춘시절을 금메달로 빛내이려는 결심을 더욱 가슴속깊이 새겼다. 그만이 아닌 전체 선수들이 필승의 맹세를 다시금 억세게 다졌다.

대회를 앞둔 훈련의 나날 책임감독 신정복동무는 집이 라선시인 문지기 옥금주선수를 내세워 전화위복의 체험담도 이야기하게 했고 매일 저녁 텔레비죤을 통하여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전변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주타격방향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데서 우리의 금메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장평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남철로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군사복무시절부터 우리 나라 축구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들을 마련해가지고와 힘을 주던 그를 우리 선수들은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장평할아버지라고 정답아 부른다.

이밖에도 많은 영양식품들을 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북돋아주던 어느 한 체육단일군이며 여러가지 운동복과 양복 등을 일식으로 마련해준 후원단체일군들의 모습도 우리 선수들은 잊지 못해하고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그 모든것을 심장속에 깊이 새겨안고 달린 우리 선수들이였다. 아니 조국인민들모두가 그들과 함께 달렸다. 그러니 어찌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단이 없다고 하랴.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는 언제나 우승에로 떠밀어온 세상에서 제일 큰 응원단이 있었다.

최후의 승리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우리는 이길것이다.》

이것은 결승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팀과 일본팀의 책임감독들이 기자회견에서 일치하게 한 말이다. 두 팀중 오직 한 팀만이 승자가 되여야 하는 결정적인 시각을 앞두고 나온 꼭 같은 발언들을 놓고 세계는 의미깊은 시선을 보내였다.

그러면 지난 시기 우리 선수들과 맞다들었던 일본팀은 어떠하였는가.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소녀 지역별선수권대회 조별련맹전과 결승경기에서 우리 팀에게 패하고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0:1로 또다시 진것으로 하여 일본팀은 어떻게 하나 이번에는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상의 준비를 갖추어왔다.

지난번 경기대회우승컵을 쟁취했던 일본팀의 이전 책임감독이 이번 경기대회마당에 나타나 우리 팀과 가나, 우리 팀과 베네수엘라팀의 경기를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사실을 놓고보아도 일본팀은 조별련맹전이 끝난 시점에서 우리 팀과의 결승경기를 미리 내다보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결승경기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 팀과 일본팀사이의 치렬한 공방전속에 벌어진 결승경기는 전후반전에서 득점이 나지 않아 0:0으로 비긴 상태에서 11m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였다. 모든 경우를 다 타산한 책임감독의 머리속에는 이미 11m차기 순서가 정해져있었다.

11m차기에서 첫번째, 세번째, 다섯번째로 차는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여 책임감독은 차기기술이 높으면서도 중요하게는 담이 큰 리혜연선수를 첫번째로 내보내였다. 그가 찬 공은 묘하게 문지기의 손우로 날아들어갔다. 여기서 신심을 얻고 14번 송향심선수가 두번째 꼴을 넣었고 자은영, 리금향선수들도 성공시킨데 이어 김봄의선수가 마지막차기에 나섰다. 매사에 침착하고 심중한 9번 김봄의선수를 마지막차기에 내보낸것 역시 감독의 빈틈없는 전술적의도에 따른것이였다. 이어 득점이 났다. 이렇게 우리 팀은 또다시 일본팀을 타승하였다.

일본팀의 감독은 《조선선수들의 정신력은 대단히 높다.》라고 하면서 여러차례의 경기들에서 자기들이 련이어 패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베네수엘라팀의 책임감독은 우리 팀과의 경기가 끝난 후 《조선팀의 경기전술이 매우 매력적이였다. 4－4－2에서 5－3－2로, 4－3－3으로 대형변화를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전술은 본받을만 하다. 그리고 개별적선수들의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 팀의 높은 기술전술적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외국의 축구전문가들도 찬탄한 우리 팀의 높은 실력에는 체육과학에 철저히 의거하여 어린 나이의 선수들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지도방법을 부단히 연구도입하고 여러 대학의 심리전문가들도 찾아가 선수들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애쓴 책임감독 신정복동무의 탐구정신이 슴배여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새겨안은 강의한 정신력과 함께 이렇듯 높은 실력까지 겸비한 우리 선수들앞에 일본팀은 또다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래서 우리 팀은 세계를 놀래우며 최후의 승리자로 우승의 단상에 높이 올라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떨칠수 있었다.

＊ ＊

미더운 우리의 승리자들속에는 아직 공민증이 없는 선수들도 있다. 하지만 경기장에 나선 그들의 앞가슴에는 공화국기가 새겨져있었다. 나어린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체육인된 긍지와 자부심이 람홍색공화국기의 세찬 펄럭임소리와 함께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그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승리자의 환희를 터쳐올렸고 드놀지 않는 용맹과 투지의 억센 뿌리를 마음속에 심어준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조국은 미더운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을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장마다에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우리 녀자축구의 밝은 미래를 긍지높이 과시한 10대의 승리자들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그 위훈은 체육강국건설사에 뚜렷한 한페지로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강 효 심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동해의 명승지에 나날이 꽃펴나는 아이들의 웃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을 위한 야영 계속 진행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조국땅에 새 전설로 끝없이 수놓아지며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을 위한 야영이 또다시 시작되였다.

인민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위대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밖의 대재난을 당한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을 위해 동해의 명승지에 행복의 야영길을 펼쳐주시고 피해지역 아이들모두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야영생활을 누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하늘같은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학부형들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피해지역 인민들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또 올리였다.

학부형들과 교직원들, 마을사람들,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바래움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야영을 떠나는 학생소년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1일 청진청년역에서 함경북도안의 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사랑의 렬차에 몸을 싣고 즐거운 야영길에 오른 피해지역 아이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애어린 마음들이 한점 그늘없이 밝게 자라라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며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은정이 뜨거워 떠나는 학생소년들도 바래주는 사람들도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함경북도, 철도성,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야영길에 오른 학생소년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을 위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영시작모임이 3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장소는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으뜸의 궁전에서 야영생활을 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으로 가득차있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전체 야영생들과 교직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는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야영생들, 교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랑랑한 신호나팔소리와 《소년단행진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학생소년들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날 맹세를 다지며 야영기를 향해 소년단경례를 하였다.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의 나날을 보내게 된 무한한 감격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낄세라 다심한 손길로 보살펴시며 야영소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진정 온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시라고 뜨거운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야영기간 다채로운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강성조선의 억센 기둥감들로 준비해나감으로써 당의 사랑과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날 야영생들을 위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교직원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축복속에 한생 잊지 못할 즐거운 야영생활을 시작하였다.

방문기

행복의 기쁨 넘치는 의료봉사기지

선천군 옥호동료양소를 찾아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적시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선천군 옥호동료양소에서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취재차가 읍지구를 벗어나니 차창으로는 높고낮은 산발들을 배경으로 펼쳐진 풍요한 협동벌들이 쉬임없이 비껴왔다.

우리의 눈앞에는 산굽인의 모양새가 항아리처럼 생긴데다가 약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여 옥호동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고 손세를 써가며 자랑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취재차로 50리정도 달려 오른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옥호동료양소가 나타났다.

정문에서 소장 김성호동무와 초급당위원장 김성철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푸른 숲 우거진 료양소구내도로들은 돌로 정결하게 포장되여있었고 치료호동들, 종합치료장, 약국 등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려져있었다.

료양소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가슴후련하게 들이키며 우리는 유명한 옥호동약수터로 발길을 옮겼다.

약수터에는 약수를 마시는 료양생들도 있었고 정자우에서는 광천치료를 마친 료양생들이 담소하는 모습도 보이였다.

옥호동약수가 위장관질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동행한 일군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약수가 나오는 이곳에는 휴양소가 꾸려져 운영되고있었다.

그러던 이곳에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따라 위장관질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료양소가 생겨나게 되였다.

해방전에는 왜놈들과 부자들이나 리용하던 옥호동약수터가 오늘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가 마음껏 리용하면서 병을 예방치료하는 전문료양소로 전변된것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진정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어 마음은 저도모르게 후더워올랐다.

료양소의 일군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료양소를 개건보수하여 인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치료조건을 마련해줄것을 결심하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보건성의 일군들은 료양소개건보수에 필요한 세멘트와 많은 량의 철판지붕, 유리, 수지창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보장해주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료양소의 외관은 더욱 훌륭하게 변모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치료봉사수준과 질을 높여 료양생들에 대한 질병치료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광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장세혁실 책임의사 김일룡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옥호동에 흔한 황경피나무와 물푸레나무껍질우림액과 약수를 함께 덥혀서 료양생들에 대한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난 몇해동안 주변에 흔한 약초들을 광천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수십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종합청사와 치료실들, 약수터와 정각들에도 이곳 료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흘린 고귀한 땀과 헌신적인 노력이 슴배여있다고 생각하니 모든것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어느덧 서쪽하늘에 석양이 비꼈는데 료양생들은 배구경기에 여념이 없었다.

즐거움과 행복에 넘친 료양생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이 되여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어 마음은 긍지로 부풀어올랐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웰남신문 《년전》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3일 딩 뉴 환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신문 《년전》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과 위인적풍모로 하여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등 여러 교육기관들과 프로그람개발단위들에서 내놓은 대규모종자관문, 라선화상재구성프로그람, 통합형공업정보기술제품개발체계를 비롯한 정보기술제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남탄광, 봉화화학공장, 옥류아동병원 등 많은 단위들에서 경영업무활동의 정보화와 통합생산체계,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개발도입한 프로그람들과 국산화된 장치, 요소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기간 정보기술제품들의 교류와 봉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폐막식이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프로그람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프로그람개발자들에게 우승컵과 우승기, 상장, 프로그람등록증, 메달이 수여되였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폐막사를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니고 나라의 정보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웰남신문 《년전》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딩 뉴 환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신문 《년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녀낮은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주석의 업적과 일가분들의 애국애민의 정신은 후대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아야 할 고귀한 유산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과학기술전당과 평양육아원, 애육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영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영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영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최일동지가 임명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인민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에서 3일 기자회견이 있었다.

회견에는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따쓰통신사 기자가 참가하였다.

회견에서는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발언하였다.

그는 크림반도의 통합이 주민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적절차를 거쳐 국제법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게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에 가해지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의 부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은 다음 로씨야기록영화 《크림의 봄》이 상영되였다.

2016년 상려컵항주국제도시바둑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6년 상려컵항주국제도시바둑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3일 귀국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말레이시아, 카나다를 비롯한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33개 팀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함은경선수는 녀자개인경기에서 높은 수읽기, 정확한 형세판단으로 공격적인 수법들을 활용함으로써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금컵을 쟁취하였으며 장리경선수와 함께 녀자복식경기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이들의 높은 실력과 경기성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 팀은 이번 경기대회 녀자단체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금컵을 쟁취하였다.

평양역에서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가족들, 바둑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돌아온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떠나갔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조한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3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동선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네르기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과학의 힘으로 담보한 전력증산방도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과학자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수도의 믿음직한 동력기지에는 이곳 로동계급과 함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며 전력생산을 위한 투쟁에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한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과학자들의 탐구의 자욱도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며 에네르기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력기계연구소 타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동평양화력발전소 타빈직장에서 애를 먹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지난해 9월경이였다.

당시 직장에서는 증기타빈계통의 운영과정에 나오는 적지 않은 량의 랭각수를 되돌려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전력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이 랭각수는 3m깊이의 지하탕크에 모이는데 다시 돌려쓰자면 지상 20여m높이에 있는 탈기기에로 퍼올려보내야 했다.

문제는 지하탕크에 모인 랭각수를 탈기기에로 순환시키기 위해 설치한 원심뽐프의 전동기가 지하의 과도한 습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자주 고장나는데 있었던것이다.

사실 지하탕크에 모이는 랭각수는 화학직장에서 많은 시약과 품을 들이며 화학처리하여 생산한 탈염수였다. 결국 이 랭각수를 되돌려쓰지 못하다나니 아까운 탈염수가 루실되는것은 물론 화학직장에서는 그만한 량을 보충하기 위해 탈염수생산량을 늘여야 했고 나아가서는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지는데로 이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는 작고도 큰 문제였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여러가지로 모색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렇다할 묘책을 찾지 못한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실장 김혁천동무를 비롯한 타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찾아온것은 바로 이때였다.

당창건 70돐을 전력증산의 혁신적인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의 전투를 벌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피타게 노력해온 전력생산자들앞에서 과학자들은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였다.

과학자들은 즉시에 현장도 돌아보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이 과정에 지하탕크에 설치된 원심뽐프대신 증기타빈계통의 뽐프에서 나오는 물이 가지고있는 큰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분사뽐프를 만들어 설치하려고 시도한 현장로동계급의 고심어린 노력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였다.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는 현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착상은 참으로 좋은것이였다.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운영이 편리한 물-물분사뽐프만 성공시킨다면 화학직장에서 많은 량의 탈염수를 보충적으로 더 생산하는데 들던 시약과 품을 덜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원심뽐프를 돌리는데 쓰이던 수십kW의 전기까지 쓰지 않게 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기였던것이다.

하다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현장로동계급의 착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무르익혀주는 방향에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과학자들은 콤퓨터에 의한 모의해석으로 분사뽐프의 동력원천으로 들어가는 물의 온도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짧은 기간에 밝혀냈다. 이 물을 그대로 리용하자면 온도를 거의 절반으로 떨구기 위한 랭각계통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였다.

결정적으로 다른 동력원천을 찾아야 했다.

과학자들은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탈기기에로 들어가는 관로에 설치된 이송뽐프에서 나오는 물을 동력원천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알고보니 현장에서도 이 방안에 대하여 이미전부터 생각은 하고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탈기기의 수위가 낮아져 급수뽐프에 주게 될 영향때문에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김혁천, 송광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강창남, 문주호동무를 비롯한 현장일군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며 마침내 이송뽐프에서 나오는 물을 얼마든지 동력원천으로 리용할수 있다는 모의해석결과를 얻어내고야말았다.

현장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과학자들은 곧 분사뽐프설계에 들어갔다. 마침내 정광진, 리명진동무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분사뽐프를 설계하였다. 이어 발전소와 연구소에서는 분사뽐프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장 김봉일동무를 비롯한 동력기계연구소의 일군들은 전력증산에 이바지할 한마음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보내는 과학자들을 찾아 현지를 직접 밟으면서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고 분사뽐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노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재도 마련해주면서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드디여 지난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분사뽐프의 설치를 끝내고 시운전에서 성공하였다.

지하탕크에서 아깝게 루실되던 랭각수가 분사뽐프에 빨려들어가 20여m높이에 있는 탈기기에로 올라가는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실리가 큰 새로운 순환계통은 이렇게 구성되였다.

성공의 그날 타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과학자들의 손을 잡고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과학의 힘이 진짜 크다고 진정을 터치며 말하였다.

하지만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풍부한 경험과 사심없는 방조로 자기들의 연구사업을 떠밀어준 발전소의 로동계급에게 축하의 앞자리를 양보하였다.

과학기술로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던 문제를 해결한것도 또 그로부터 얻게 된 경제적실리도 물론 크고 귀중한것이였다. 그리고 최대부하시에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연구종자도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방도도 현장로동계급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 풀어나가고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애국의 마음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과학기술기관차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 이것이야말로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중의 위력이 아닌가!

본사기자 리명희

주목을 끄는 연구성과들

자연에네르기분산형통합체계 개발

파선시 파진지구인민위원회 산하단위에서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계통련결변환기를 개발하고 태양빛, 풍력, 소형수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자연에네르기발전계통과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과의 첫 계통련결을 실현함으로써 값비싼 축전지들을 전혀 쓰지 않거나 대폭 절약할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에네르기분산형통합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정상운영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자연에네르기분산형통합체계는 태양빛전지와 풍력발전기, 소형수력발전기로 이루어진 수십kW능력의 국부발전계통과 파선청년발전소의 전력계통, 이를 련결하는 계통련결변환기와 분산전원조종반, 쌍방향적산전력계 및 승압변압기 그리고 체계를 자동적으로 실시간 감시조종하는 조종용콤퓨터와 측정계기 및 감시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이 단위에서는 건물외벽과 지붕에 태양빛전지판들을 대량 설치하여 태양빛발전체계를 형성하여놓았으며 자체로 제작한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풍력발전기들과 축류식저락차 소형수력발전소로 종합적인 자연에네르기발전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에네르기발전체계를 전력계통과 련결하기 위한 우리 식의 계통련결변환기와 분산전원조종반 등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다.

또한 콤퓨터와 분산전원조종반을 리용하여 자연에네르기발전체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상태량들과 소비 및 계통인입실태를 실시간 감시조종함으로써 계통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하고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전력생산과 분배, 소비의 과학적균형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열관제작기술 개발

단정무역회사 열관제품보급소에서 우리 식의 새로운 열관제작방법으로 여러가지 용도의 공업용(물가열 및 증기생산, 자연에네르기리용, 고열회수, 폐열리용 등)과 가정난방용열관들을 생산도입하여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일반적으로 열관은 완전밀폐시킨 관내부에서 열나름매질의 증발과 응축에 의한 초열전도성을 리용하여 한쪽(증발부)의 더운 열을 다른쪽(응축부)으로 전달하는 열교환요소이다.

열관의 특징은 전체 길이에서 절면온도가 균일한것이다. 그 원인은 관내부에서의 뛰어난 열전달속도와 열수송능력에 있다. 일반금속들에 비하여 열관내부에서의 열전달속도와 열수송능력은 수백배나 된다고 한다.

소장 허용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특등의 설비가 없이도 일반적인 설비와 간단한 기구를 리용하여 상온환경에서 손쉽게 제작할수 있는 새로운 열관제작방법을 개발하였다.

화석연료(실례로 석탄 등)를 열원으로 쓰는 경우 열리용효률을 85%이상 높일수 있고 전기보이라인 경우에는 50%이상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으며 고열회수와 폐열리용에서도 아주 리상적이다. 태양열물가열기용열관으로 쓸 때 수입산 열관에 비하여 태양열흡수률을 15%이상 높이였으며 가정난방체계에 열관을 리용하면 석탄을 50%이상 절약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제작방법으로 만든 다양한 열관제품들은 태양열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와 화석연료의 열리용효률을 리상적으로 높이며 자연환경에 지해를 주는 고열을 제거하고 공업폐열을 효과적으로 재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은을 내는 전자식전류변성기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에서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새롭게 만든 60kV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가 지금 현실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변성기라고 하면 고압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전력계통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계통보호의 역할도 수행할수 있는 고압전기설비를 말한다.

현재 가장 널리 리용되고있는것이 전자기유도식전류변성기인데 지금까지 이 전류변성기가 절연파괴시에 폭발하면서 그것이 계통단락사고로까지 확대되고 막대한 피해를 준 현상들이 여러차례 발생한것으로 하여 최근 세계적으로는 전자식전류변성기도입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 개발은 첨단연구과제로 나서고있다.

전력문제해결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관건적인 고리로 되고있는 현실적요구를 깊이 자각한 오영선, 신명진동무를 비롯한 전력공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전자식전류변성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개발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스스로 맡아안았다.

성과 연구소당조직의 적극적인 방조와 지도속에 이들은 드높은 애국열의와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우리 식의 전자식전류변성기를 개발해낼 대담하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10여년간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첨단수준의 새로운 전자식전류변성기를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고압전류수감부분, 통신부분, 현시 및 신호처리부분으로 구성되여있는 새로운 전류변성기는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이다.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개발된 전류변성기들과는 전혀 다른 새형의 전자식전류변성기이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60kV전압단계에 적용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전압단계를 계속 높이면서 그에 맞는 전자식전류변성기들을 마음먹은대로 개발해낼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전자기유도식전류변성기나 다른 형의 전자식전류변성기들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눅을뿐아니라 수감부분을 고압선로에 직접 현수설치하게 되여있기때문에 한두명의 적은 로력으로 쉽게 설치할수 있으며 관리와 수리도 쉽다.

또한 지함포장하여 손질운반을 할수 있도록 경량화되여있어 특별한 운수기재가 없이도 쉽게 이동시킬수 있다.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장치의 믿음성과 측정-현시 정확도가 높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우리 나라의 그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정상동작할수 있도록 설계되여있을뿐아니라 절연수준이 매우 높아 특별한 보수가 필요없다.

이와 함께 전류측정범위가 매우 넓은것이 특징적이다.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정격전류에 관계없이 1.5A의 매우 낮은 전류에서부터 높은 사고전류에 이르기까지 측정가능한것으로 하여 무감도구역이 거의 없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있다.

보호기능에 있어서도 과전류보호, 속단보호, 차동보호 등 각이한 기능들을 다 수행할수 있다.

현재 현수식전자전류변성기는 여러 단위의 60kV선로들에 설치되여 정상운영되고있으며 이미 있던 전류변성기의 로화나 파괴 등으로 교체, 보강하거나 새로 건설되는 선로들에 설치할 설비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전력공업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해나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장진강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고효률풍력발전기를 연구제작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풍력발전연구실의 연구집단이 풍력에네르기리용에서 효률성과 안정성 등을 현저히 개선한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실장 김용산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풍력발전기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왔다.

그 과정에 이들은 풍력에네르기리용효률에 있어서 종전의 풍력발전기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인볼류트형풍력발전기를 만들어낼것을 결심하고 그 개발에 달라붙었다.

인볼류트형풍력발전기의 특징은 풍차의 날개형태가 풍력에네르기를 기계적인 회전에네르기로 전환시키는데서 효과적인 인볼류트곡선을 기준선으로 하고 날개축방향으로는 스크류원리를 적용한 원추형곡면을 이루도록 되여있는것이다.

이러한 립체적인 구조를 가진 날개는 풍차로 들어오는 바람을 모조리 잡아 기계적에네르기로 전환시키기때문에 종전의 풍력타빈에 비하여 발전효률이 대단히 높다.

연구집단은 콤퓨터모의실험을 통하여 각이한 바람조건에서 발전효률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풍차날개와 날개골조, 지지구조물 등의 구조치수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그 제작에 달라붙었다.

이와 함께 각이한 바람조건에서 최대출력을 추종조종하기 위한 장치와 보호, 현시장치제작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이렇게 제작해낸 새형의 풍력발전기는 여러가지 현실조건에서의 충분한 시험을 통하여 그 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에네르기전환효률은 거의 50%로서 종전의 풍력발전기들에 비해볼 때 효률을 10%이상 높인것으로 된다. 하여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풍력발전기들중에서 리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전환효률에 가깝게 접근한 풍력발전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리고 날개가 바람을 막지 않고 같이 회전하므로 소음은 종전보다 2-4배나 낮아졌으며 진동도 거의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건물지붕에 설치하는데 적합한 풍력발전기로 되고있다.

또한 구조상특성으로 하여 풍차의 시동성이 훨씬 개선됨으로써 바람방향에 관계없이 낮은 풍속에서도 잘 돌아간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새로운 풍력발전기는 시동풍속이 1.5~2m/s이고 풍속 3~5m/s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며 정격출력은 1.5kW이다.

생산을 위한 지구장비가 갖추어진 조건에서 유리섬유강화수지나 철판으로 쉽게 만들수 있어 종전의 풍력발전기보다 제작원가도 적게 든다.

새로운 풍력발전기는 효률이 높고 구조적으로 안정한것으로 하여 기관이나 가정들을 위한 건물지붕설치용으로뿐아니라 가로등의 전원보장과 양수동력보장에도 리용할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있다.

연구사 김문희, 최명철, 김광일동무들을 비롯한 풍력발전연구실의 모든 연구성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보다 효률적인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개발해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직업적혁명가의 영예와 긍지

함흥시 회상구역 해빛2동에 사는 리성실동무와 그의 가정

리성실동무가 선 교단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작은 교단을 수십년동안 지키며 그는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사업에 교육자의 순결한 량심을 다 바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리성실동무의 가정은 교육자가정이다.

그의 량부모는 물론 이모를 비롯한 가족, 친척들도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쳤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 다니는 그의 남편 한성철동무와 오빠 그리고 고모 역시 교원으로 일하고있다.

교육자가정의 환경, 그것이 결코 리성실동무로 하여금 직업적혁명가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수십년을 후대교육사업에 전심하게 한 요인의 전부는 아니다.

꿈많던 대학시절 리성실동무에게는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어느날 리성실동무의 집에 소학교교원이였던 그의 아버지가 배워준 제자들이 찾아왔다. 소년단시절의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장의 사진을 찾아든 그들은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앞가슴들에 꽃송이들을 달고 찍은 사진이였다. 학교졸업사진을 찍는 날 리성실동무의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달아준 꽃송이들이였다.

《학생동무들은 어디에 가든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교원의 당부를 부디 잊지 마시오. 그래서 누구나 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그때 들려주던 스승의 이야기를 잊을수 없었던 제자들이였다. 그날 스승의 당부대로 삶을 빛나게 살기 위해 애써온 나날들을 추억하는 아버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리성실동무의 충동은 매우 컸다.

후날 이 사실을 가지고 직업적혁명가의 긍지와 영예라는 내용으로 된 글작품을 지었는데 그것이 교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자가 되려는 리성실동무의 꿈과 포부는 이렇게 움텄으며 부모님들의 꾸준한 교양속에 무르익었다. 그 나날 교원은 직업적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심장에 새긴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곧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소학교교원이 되였다.

교원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것을 명심한 리성실동무는 수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중단없이 내밀었다. 수학, 국어, 외국어 등 다과목에 정통하였을뿐아니라 손풍금까지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준비함으로써 회상구역 정성소학교적으로 실력이 높은 교원으로 소문을 내게 되였다. 이런 높은 실력에 기초하여 그는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가 담임한 학급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련일 배출되게 되였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며 상급학교들에 추천된 사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알아맞추기경연에 여러명이 입선된 사실 등만 보아도 그가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교육자로서의 수십년세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였다.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교원을 그만둘 생각도 여러번 해온 그였다. 하지만 학교당조직과 일군들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나약한 생각을 잊고 맡은 일에 전념하게 하였다. 지금도 정성소학교 교장 박경남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리성실동무가 삶의 희열을 안고 교육자의 한생을 빛나게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에 큰 힘을 얻으며 리성실동무는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그 나날 그는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였으며 새교수방법동호중,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중소유자로 되였다.

교원은 직업적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 그것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리성실동무는 오늘도 후대교육사업에 온넋을 깡그리 쏟으며 부모들이 걸은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만리마기수들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평양산원 현장치료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특히 의사 리성천, 박혜란, 정영옥, 주은희동무들과 간호원 심영희동무의 격정은 남달리 컸다.

사실 이들은 지난 70일전투때 평양산원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을 위한 현장치료대에 참가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장을 현대적으로 전변시키였을뿐만아니라 70일전투기간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도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만리마시대의 기수들을 적극 도와주자.

그들의 가슴은 하나의 지향으로 고동치였다.

산원의 책임일군들은 공장으로 떠나는 의료일군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70일전투때처럼 언제나 화선군의로 살며 일하기 바랍니다.》

화선군의!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그들은 200일전투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를 북돋아주며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무조건 완수할 굳은 각오를 안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산원과의 련계밑에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과 협의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장치료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리성천동무는 현장치료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어느날 이곳 의료일군들이 현장으로 치료사업을 나가려고 할 때였다.

불현듯 박혜란동무가 의료일군들앞에 두툼한 꾸레미를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결명자차와 오미자차를 비롯한 약재들이 들어있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는 로동자들의 피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가 해서…》

치료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종업원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싶어 마음쓰는 그의 진정이 모두의 가슴을 뭉클시켰다.

이들의 현장치료활동은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은 퇴근시간이면 공장종업원들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도 성의껏 치료해주었다.

어느날 정영옥동무가 평천구역에서 사는 한 처녀조사공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그의 어머니의 병은 위급했다. 즉시 구급대책을 세운 정영옥동무는 그를 업고 병원으로 달리였다. 그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조사공의 어머니는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치료를 받게 되였다.

일터에서 정영옥동무의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처녀조사공은 더욱 분발하여 그날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의사 주은희동무는 삼복철의 날씨에 맞게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예방대책을 주도세밀하게 세워나가면서 만리마기수들의 자식들이 튼튼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였다.

80살에 가까운 주은희동무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걱정이 없이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말없이 떠밀어주었다.

간호원 심영희동무의 소행도 종업원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종업원들을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며 성의를 다하였다. 치료예방과장 한명철, 부원 리윤숙, 약품공급과장 김광일, 신약제제과 당세포위원장 허미라, 방역과장 김성언, 운수과장 최계윤동무를 비롯한 평양산원의 일군들도 현장치료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정녕 현장치료대 의료일군들의 낮과 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쥐여주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공장의 종업원들과 마음도 숨결도 함께 하는 전투의 나날이였다.

오늘도 평양산원 현장치료대원들은 1950년대의 화선군의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만리마기수들과 더불어 충정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대동강구역량정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부터가 당 제7차대회 보고의 내용을 깊이있게 학습한데 기초하여 한개 단위씩 맡고내려가 해설하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아침독보와 학습토론, 문답식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 보고의 정신과 내용을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맹세를 안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창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사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동신문통신원 박은희

민심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 하늘에 닿았다

기만적인 심복교체놀음

보도들에 의하면 세인을 경악케 하는 국정롱단과문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역도년이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비서실의 심복들을 교체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날 각계층의 지주와 원한을 가장 많이 받던 박근혜측근들중의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도 교체되였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것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리명박과 박근혜역도들이 정치위기를 모면하는데서 돌격대로 악명떨쳐온 최재경이 임명된것이다.

최재경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리명박역도가 련루된 BBK주가조작사건을 담당수사하여 판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자이다.

2011년 리명박이 퇴임후 살게 될 집터를 헐값으로 사들이도록 한 내곡동주택부지매입사건을 말아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역도가 도마우에 오른 고기신세를 면하게 해주는데서도 큰 몫을 하였다.

최재경이 《정치검사》로서의 정체를 더욱 드러낸것은 민간인 사찰사건이다.

2010년 《총리실》 공직륜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이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밝혀졌을때 최재경은 직원들만 사법처리하였을뿐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각계의 요구에 못이겨 재수사에 들어가서도 력심증거들을 빼돌리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사건수사를 끌어오다가 대충 수사결과발표를 하는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최재경은 특대형참사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까지 앞장에서 가로막은 악질주구이다.

이런자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그는 최재경과 같은자가 그런 자리에 들어앉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수습하기 위한것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깔은 당의 한 의원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최재경은 우병우보다 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다. 검찰을 통제하려는 씨나리오가 가동된것이라는 의혹이 절로 제기된다.》는 글을 올렸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네트홈페지에 《최재경 민정수석에 임명, MB의 귀환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피뢰침당의 심복교체놀음을 국정롱단과문을 덮으려는 술책의 일환으로 락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최재경을 내신한것은 사건수사를 저들의 입맛대로 끌고가려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술책의 연장이라고 까밝혔다.

국민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정수석에 전형적인 《정치검사》를 후임자로 선정한것은 청와대가 여전히 검찰롱제를 통해 국정롱단사태를 무마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결국 박근혜는 칼날우에 선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줄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찾은셈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오판도 이런 오판이 없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3일 박근혜의 피뢰국무롱리지명을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청와대비서진을 급작스레 개편한데 이어 일방적으로 《국무롱리》를 지명하였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비난하였다.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음모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태도에 절망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사설은 개탄하였다.

사설은 박근혜가 이번 《롱리》 지명으로 현 사태를 보는 자기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가를 드러내보였다고 규탄하였다.

최순실과 판련자 일부만 구속하면 민중의 분노를 잠재울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오판도 이런 오판이 없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민중이 문제삼는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자신이며 그가 최순실의 국정롱단을 방임한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민중은 생각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장판이나 청와대수석비서관들로부터는 1년에 한번도 대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최순실과는 수시로 국정을 협의하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가고 민중은 의문을 던지고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여론조사에서 민중의 절반이상이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를 요구하고있는것은 박근혜가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민중여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여야와의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총리》를 지명한것은 민중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표가 《총리》지명을 비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가 웃을노릇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민심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리》가 특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총리》는 박근혜의 일시적인 방탄조끼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혜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할수록 민심의 분노만 커질뿐이라고 경고하였다.

방탄개각 즉각 철회하고 퇴진하라

남조선 《경향신문》이 3일 《박대통령, 방탄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국무롱리》를 새로 지명한데 대해 청와대가 여러가지로 리해시키려 하고있지만 야당은 모두 한목소리로 개각철회를 요구하고있으며 여당내에서조차 일방적개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멈춰서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권력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것이 다시금 확인되였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중립내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현 난국을 박근혜가 진정으로 리해하고 국정정상화를 고민했다면 독단적인 《총리》지명에 앞서 여야와 함께 론의하고 합의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 《경향신문》이 3일 《박대통령, 방탄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국무롱리》를 새로 지명한데 대해 청와대가 어려가지로 리해시키려 하고있지만 야당은 모두 한목소리로 개각철회를 요구하고있으며 여당내에서조차 일방적개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멈춰서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권력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것이 다시금 확인되였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중립내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현 난국을 박근혜가 진정으로 리해하고 국정정상화를 고민했다면 독단적인 《총리》지명에 앞서 여야와 함께 론의하고 합의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민중여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여야와의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총리》를 지명한것은 민중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표가 《총리》지명을 비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가 웃을노릇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민심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리》가 특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총리》는 박근혜의 일시적인 방탄조끼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혜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할수록 민심의 분노만 커질뿐이라고 경고하였다.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망녀가 몰아온 국정롱단사전의 여파로 피뢰집권여당의 붕괴위기가 표면화되고있다.

《새누리당》 이정태표를 비롯한 비박계의원 41명이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모임을 가지고 당지도부 총사퇴,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성명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임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비박계의원들은 현재의 당지도부에 《최순실게이트》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같은 날 비박계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순실사태 진상규명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모임》도 성명을 발표하여 당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위기를 수습할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만 보아온 당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친박계인물들까지도 당지도부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에 련이어 서명하며 비박계의 흐름에 합세하고있다.

10월 31일 성명이 나오자마자 60여명이 여기에 서명하였는데 그중에는 친박계의원들도 포함되였다고 한다.

그들은 당대표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당지도부가 무조건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당대변인은 성명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사퇴의 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립장에서 당직을 유지하는것은 그롯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뒤이어 당홍보본부장이 대표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한것을 비롯하여 친박계에서 리탈하기 위한 주요인물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있다.

《개싸움질로 격랑에 휩싸인 새누리당》

《새누리당》내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CBS》방송, 《UTBC》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친박지도부가 흔들리고있다.》, 《제편끼리 개싸움질로 격랑에 휩싸인 새누리당》, 《당내 파렬음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였던 박근혜대통령의 탈당요구목소리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등으로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역도가 그로부터의 출로를 우리에 대한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권력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지고 점차 그 진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에 따라 박근혜역도는 더는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면서 박근혜에게는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탄핵당하든가 하는 두갈래의 길만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박근혜역도가 현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저들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악정으로 파국적국면에 처할 때마다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세인의 눈길을 딴데로 돌려보려 하는것은 남조선피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세월》호참사후에 벌어진 희비극이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백명에 달하는 애어린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을 때 박근혜역도가 7시간통안이나 최순실의 이전남편과 불장을 보고있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로 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박근혜탄핵》운동이 세차게 벌어짐에 따라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든 박근혜역도는 군부호전광들을 내몰아 조선서해 해상경계선일대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함선들에 함부로 불질을 해댔는가 하면 번소분짝까지 내들고 우리의 무인기라고 하면서 히스떼리적 광기를 부렸다.

최근 박근혜역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피뢰들이 헌일 상전인 미국과 마주앉아 《북조선의 도발》에 대하여 떠들면서 각양각색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는것이나 핵탄두미싸일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끌어들이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이번에 드러난것처럼 미신정이 선무당이 뒤꼴방에서 꾸며낸 그 무슨 《붕피》시간표를 믿고 북남관계의 전면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때달렸던 박근혜역도의 소갈머리없는 처사와 사면초가에 빠진 처지를 놓고볼 때 이제 또 분별없는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집권후 지금까지 못된짓만 골라가며 반공화국책동에 광분해온 박근혜패당의 죄악을 철저히 계산하고있으며 만일 박근혜가 제 목숨을 살리려고 감히 도발을 걸어온다면 천백배의 보복으로 단호한 징벌을 가할 의지에 넘쳐있다.

누구든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는 박근혜패당의 궁여지책을 가려보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다가는 수치와 오명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손가락질받는 청와대마귀의 하수인

최근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이 박근혜역도의 더러운 출개로서의 자기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그 무슨 《추도식》이라는데 나타난 역도는 《탈북》이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이자의 망발은 청와대마녀가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궤변한 수작을 그대로 외워댄것이였다. 이날 리정현역도는 박근혜가 《체제전복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다느니, 그 누구를 《고립》되게 만들었다느니 뭐니 하며 과쇼폭압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청와대의 늙다리마귀를 극구 추어올리는 역겨운 추태를 부렸다.

이뿐이 아니다. 리정현역도는 《이북도민체육대회》라는데 기신기신 나타나서는 박근혜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데북정책〉을 시행》하고있다느니, 《북이 도발》하면 《열배로 보복》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느니, 《덕분》이니 하며 낯뜨겁게 놀아댔다.

리정현역도는 이미 지난 2014년 온 남조선사회가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에도 자기는 박근혜와 11년동안 같이 있었지만 정윤회는 한번도 못 봤다는 변명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으며 상전을 비호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그 무슨 《추도식》이라는데 나타난 역도는 《탈북》이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이자의 망발은 청와대마녀가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궤변한 수작을 그대로 외워댄것이였다. 이날 리정현역도는 박근혜가 《체제전복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다느니, 그 누구를 《고립》되게 만들었다느니 뭐니 하며 과쇼폭압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청와대의 늙다리마귀를 극구 추어올리는 역겨운 추태를 부렸다.

이뿐이 아니다. 리정현역도는 《이북도민체육대회》라는데 기신기신 나타나서는 박근혜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데북정책〉을 시행》하고있다느니, 《북이 도발》하면 《열배로 보복》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느니, 《덕분》이니 하며 낯뜨겁게 놀아댔다.

리정현역도는 이미 지난 2014년 온 남조선사회가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에도 자기는 박근혜와 11년동안 같이 있었지만 정윤회는 한번도 못 봤다는 변명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으며 상전을 비호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박근혜의 주변을 맴도는 졸개들중에 역도의 눈치를 보지 않는자가 없지만 바지임은 녀석치고 《새누리당》대표처럼 낯간지럽게 발라맞추는자는 없다.

리정현은 박근혜의 손때묻은 앞잡이이다. 박근혜의 측근졸개인한에 리정현은 역도의 집권이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자리를 차지할수 있었다.

리정현이 이어 《국회》의원선거에 나선것도 박근혜역도의 부추김과 지원이 있었기때문이다. 박근혜역도는 청와대를 떠나 《새누리당》에 거처를 정한 리정현이 개취급을 받을가봐 원심까지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내 친박계의 주류에도 끼우지 못하면 리정현이 탕대표자리에 올라앉은것은 박근혜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때문이다.

그것이 얼마나 감지덕지했던지 리정현역도는 탕대표업무를 수행하는 첫날부터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에 맞서는것이 마치 정의인것처럼 인식한다면 여당의원자격이 없다.》, 《여당이 뭐 못 보겠다.》, 《〈대통령〉을 야당과 똑같이 〈대통령〉을 대한다면 여당의 본분과 지위를 포기한것이다.》라고 피대를 돋구어 청와대안방주인의 들도 없는 노복으로서의 자기 기질을 잘 보여주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리정현이 《적극적인 청와대 편들기를 하고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리정현역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박근혜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미상방법》이니, 《목숨바칠 각오》니 하는 어마어마한 언사까지 써가며 단식놀음을 벌려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재깨 망신만 당하였다.

10여년을 청와대마귀로의 귀퉁한 치마폭에 붙어산 리정현은 사기와 협잡, 아첨을 떼놓고는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는 시정배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리정현이 《쿨수친박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고 하면서 민심의 비림을 받고 산송장이 된 박근혜를 아직도 섬기면서 그의 손발노릇을 극성스레 하는 미물은 리정현뿐이라고 조소하고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내에서까지 《낯이 뜨거워 못 보겠다.》, 《〈대통령〉을 섬기는데 온 신경이 가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겠는가.

명색이 여당대표라는자가 체면이고 뭐고 다 헤버리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비굴하게 놀아대는 꼴을 보면 창녀에게 흘리운 반편자식이 분명하다.

리정현이 박근혜역도의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비호하고 미화분식하며 추하게 놀아대고있는데는 청와대안방주인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워 허둥대고있는 지금 역도에게 어떻게 하나 잘 보이려는 비굴한 속심이 깔려있다.

미국은 리정현이 이제는 보수세력들조차 산송장으로 치부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박근혜를 계속 섬기며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명줄이 끊어져가는 청와대의 늙다리마녀를 아직도 상전으로 여기며 년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리정현과 같은 천하의 바보가 여당대표랍시고 거들먹대고있으니 《새누리당》에 웨 망조가 들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는 리정현이 《새누리당》의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의 몸종노릇이나 하다가 역도와 같이 숭장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김 철 남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팀리 상급연구사가 10월 31일 인터네트롱신 쁘라우다, 루와의 회견에서 조선반도비핵화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한때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의제로 상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핵폭격기들이 남조선에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든 안가지든 남조선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였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씨야뿐아니라 중국도 조선의 핵무기보유원인을 리해하고있으며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요격미싸일체계를 배비하려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조선은 자기들을 침공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명백히 천명하였지만 미국에는 조선과 로씨야에 대한 핵선제타격론이 존재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은 미국이 핵선제타격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전문가 조선반도비핵화문제 언급

현실화되는 북침3각군사동맹

최근 남조선피뢰패당이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미국, 일본과 3각군사동맹구축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내대며 일본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로골화함으로써 3각군사동맹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금 피뢰패당은 《력사와 안보는 분리》되여야 한다는 황당한 론리를 내세우면서 일본당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이것이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구축을 더욱 다그치게 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뢰들이 미국, 일본과의 3각군사동맹조작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은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에 겁을 먹은 나머지 상전들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반공화국대결에 계속 매달리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반역적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는데 당황망조한 박근혜역적패당은 반공화국체제소동에 광분하는 한편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멸망의 구렁령이에서 헤여나려고 발악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은 그 출로를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는데서 찾으면서 3각군사동맹구축에 적극 뛰여들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정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위협》으로 떠도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들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이 3각군사동맹구축에 광분고나서는것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제압하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전의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망동이다.

아시아의 두 주구인 남조선과 일본을 3각군사동맹의 틀거리에 든든히 얽어매고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적극 써먹으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특히 미국이 3지사이의 《국방협력》을 운운하고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것은 사실상 3각군사동맹구축을 노린것이다.

《싸드》가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하고있으며 그의 남조선배치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한 고리라는것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한사코 정당화하면서 미국의 푸두각시노릇을 하고있다.

피뢰들이 미국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에 적극 카담하는것은 남조선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고 남조선인민들을 핵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범죄행위로 된다.

더우기 그것은 백년숙적인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조선반도재침야욕을 부채질하는 반역적죄악이다. 박근혜패당의 친일근성을 잘 알고있는 일본반동들은 날로 더욱 오만한 자세를 취하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모조리 부정하고 독도강탈과 재침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이 《력사와 안보는 분리》되여야 한다는 뚤개빠진 친일망발을 줴치며 일본반동들과의 복침을 위한 공모결탁을 강화하는것은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그 어느때보다 적극화하면서 3각군사동맹구축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미국의 압력과 부추김에 따른것이다. 미국은 지금껏 남조선과 일본에 관계개선을 다그치고 군사협력을 추진할것을 끈덕지게 요구해왔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도쿄에까지 날아가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 3각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본당국자에게 장시간에 걸쳐 력설한 사실과 지난 9월초 미국회 하원에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공조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 등은 미국이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해 얼마나 분주탕을 피우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일본군성노예문제관련 《합의》가 이룩된것도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른것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3각군사동맹구축을 시급히 추진시키기 위해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미국의 압력이 이번 협상에 큰 작용을 하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이 피뢰들이 미국, 일본과 야합하여 벌리고있는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동북아시아에 신랭전체제를 불러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야욕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지역과 세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는것은 응당한 자위적권리이다.

피뢰패당이 외세와 함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핵무력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북침을 노린 미국과 일본, 남조선피뢰들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저들의 비참한 파멸만을 촉진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파쇼광의 정체를 립증해준 문예인 요시찰명단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에서는 청와대패거리들이 피뢰역도의 사촉에 따라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탄압할 목적밑에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내리먹인 사실이 공개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해 5월 청와대는 부피두리운 요시찰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냈다. 일명 《김은 명단》이라고 불리우는 요시찰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폐기촉구 선언에 서명하였거나 《세월》호참사 시국선언을 지지한 문예인들과 지난 피뢰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때 야당후보와 무소속후보를 지지한 문예인들의 이름이 무려 9473명이나 올라있다.

얼마전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피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은 명단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요시찰명단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되였다. 요시찰명단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보살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뻔뻔스러운자들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박근혜패당이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위험인물》로 락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가로막은것이다.

한 야당의원은 피뢰당국이 문예인들에 대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요시찰명단을 들여다보았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패당은 진보적인 문예인들에게 제정적지원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 연출가는 2년전에 《유신》독재자를 풍자하는 연극을 연출한것으로 하여 공연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문예인들이 피뢰당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출연을 금지당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문예인들을 대상으로 《유신》독재시대에나 있을수 있었던 불법무법의 탄압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은 남조선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남조선문예인들의 합법적권리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고 인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유린이다.

피뢰역도가 문예인들을 탄압하고 위협하면서 반역정책실현에 써먹으려 하지만 그것은 절대 통할수 없다.

사회의 진보와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문예인들을 총칼로 다스리며 폭압에 기승을 부리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유신》독재자의 운명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청와대악녀가 제 애비의 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따 문예인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서 과쇼독제의 광풍을 일으키고있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정치송장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인사들과 인민들은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절과에 따라 피뢰역도를 탄핵시키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문예인은 피뢰역도로부터 《대통령》직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려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인민을 탄압하는 극악한 파쇼광들이 오래갈리는 만무한것이다.

이미 분노한 민심에 의해 만신창이 된 박근혜일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ㄱ-61178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